

[보도자료] 쿠팡,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부터 온라인 판로까지 영·호남 소재 76개사 상생 기획전 연다

2026. 10. 19.



- 디지털 교육·맞춤형 컨설팅 거쳐 실제 판매까지 10월 19~31일 기획전 진행
- 교육·컨설팅 성과 실제 판매로 연결 지역 우수 상품 전국 고객에 선보여

2026. 10. 19. 서울 - 쿠팡이 '디지털 점프업 아카데미'에 참여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후속 지원에 나선다.

쿠팡은 10월19일부터 31일까지 13일간 '디지털 점프업 상생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는 '디지털 점프업 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거친 지역 소상공인 76개사가 참여한다.

'쿠팡 디지털 점프업 아카데미'는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참여 업체들은 8주간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SI 활용법 ▲상품 기획·등록 ▲온라인 판매·디지털 마케팅 전략 ▲상품 콘텐츠 개선 등 실전 중심의 교육을 받았다. 이후 쿠팡 브랜드 매니저(BM)의 상품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을 거치며 온라인 판매 경쟁력을 높여 왔다.

이번 기획전은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쌓은 역량을 실제 판매 기회로 연결하는 후속 과정이다. 쿠팡은 이번 기획전 운영과 마케팅 지원을 통해 참여 업체의 상품 노출을 확대하고 전국 고객에게 상품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 참여 업체들은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온라인 판매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전북 익산 소재 '스퀘어푸드랩'은 곡물 혼합분말과 그래놀라 등을 판매하는 식품업체로, 1대1 컨설팅을 통해 핵심 판매 포인트를 진단하고, 상품 상세페이지의 디자인과 정보 구성을

개선했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판매 기반을 다지며 전국 단위로 판로를 넓혀가고 있다. 부산 소재 '정성깃든'은 천연조미료와 맛간장·맛육수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오프라인 판매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고객 반응을 바탕으로 주력 상품을 발굴하고 있다.

쿠팡 사회공헌실 관계자는 “디지털 점프업 아카데미는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이 실제 온라인 판매 경험을 쌓고 판로 확대와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 온라인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